

혼자가 아닌 우리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15학번 박○○

○ 에세이 작성 동기

대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대학가에는 온라인수업이라는 익숙치 않은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3월부터 진행된 온라인 수업은 현재 2학기까지 진행 중이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다. 이에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습이 잘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미비하게나마 지난학기에 괜찮은 결과를 봤던 개인적인 학습노하우를 통해 도움을 주고자 에세이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

본인은 1학기 학습 기간 동안 ‘NALDA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소하였던 온라인수업에 임하였다. 학습 공동체 활동은 말 그대로 특정 주제와 목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동체를 이루어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의 경우 기계공학과의 과목 중 ‘기계요소설계’ 과목을 ‘NALDA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하여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부족하였던 점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고 함께 하였던 팀원들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습하였던 학습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학습은 대략적으로 세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수업 듣기 단계’로서 교수님께서 수업 해주셨던 내용을 잘 듣고 필기하며 강조하시는 부분과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을 팀원 개인적으로 정리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질의 응답 단계’로서 첫 단계에서 개인적으로 정리하였던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 풀이가 난해한 문제 등을 서로의 팀원들에게 질문하고 답해주며 진행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정리 단계’로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들을 매주 몇 문제를 선정하고 다음 모임에 같이 풀이하고 각자 몇 문제씩을 맡아서 서로의 팀원들에게 강의하는 식으로 진행 하였다.

이 방법은 꼭 ‘NALDA 학습공동체’ 프로그램만이 아닌 같이 수강하는 소수의 학생들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모임을 꼭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소화 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비교적 덜하다고 판단이 된다.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이렇게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여 보니 장점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먼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팀원들의 도움을 통해 보다 손쉽게 해결 할 수 있었고 수업을 듣다 보면 개인별로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께는 질문 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는데 같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그에 비해 부담도 없을 뿐더러 연락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의문을 해소하는데 수월 하였다. (물론 팀원들끼리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으나 한번 정리를 하고 질의를 하니 보다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수업을 듣다 보면 지난 학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배웠으니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부분의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은 많이 잊은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 같이 복습할 수 있어 수업을 따라가는데 더욱 유익하였다.

다음으로는 시험에 출제 될 만한 문제들을 매주 몇 문제 선정을 하고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선별한다는 것은 심도 있게 책의 내용을 이해 하고 책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야만 하므로 학습에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 심지어 팀원들과 선정한 문제 중에서 시험에서 실제로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 공동체 활동에 아주 만족 하였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간혹 동영상으로 강의를 올리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다. 동영상 강의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이 미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문제를 준비하면서 미리 공부를 하고 복습을 철저하게 하게 되고 각자 서툴지만 서로에게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매주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임감으로 인해서 더욱 부지런히 학습을 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신이 아는 지식을 남에게 강의할 수 있을 때 완전히 자신의 지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각자 서툴지만 서로에게 강의를 함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더욱 견고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임을 'zoom', 'microsoft teams' 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화이트보드 기능 및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각자의 풀이와 자료들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였고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모임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진행하였는데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비교적 덜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 추천 이유 및 소감 등

현재 2학기에는 NALDA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1학기때 하였던 활동을 바탕으로 강의를 함께 수강하는 친구들과 함께 비슷한 과정을 거쳐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혼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여러 부분들을 함께 질의하고 토론을 하며 원활하게 수업을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 평소 팀 프로젝트라면 치를 떨고 막막하기만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었으나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팀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이 되었다.. 이 글을 읽을 다른 학생들도 위에서 언급한 총 3단계를 바탕으로 함께 온라인학습을 이루어 나가기를 추천한다.

‘집단지성’이란 말이 있듯이 개인의 지성들이 합쳐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학교가 주체하는 ‘NALDA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함께 수강하는 수강생들과 함께 ‘zoom’, ‘microsoft teams’와 같은 프로그램과 메신저를 통해 함께 학습한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뒤숭숭하고 학습에 어려운 이시기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